

'50% 문구' 벽 넘었는데... '文 해임안' 마지막 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 연금개혁 시한 이틀 앞두고 협상 제동 野 "문형표 물러나야" 與 "정도가 아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평가’라는 난제를 해결한 여야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압축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바지 협상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주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26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진됐다.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규칙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2조에 대해 “지난 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합의했다.

지난 6일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했던 기존 합의안에서 2조 규칙안의 부칙에 명기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부칙이 아닌 규칙으로 옮겼으나 50%라는 숫자를 못박지 않는 방향으로 여야가 절충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타협점을 찾았지만, 야당 측에서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시행령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추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간 논의가 다시금 교착상태에 놓였

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회동을 열기로 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만남이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측에서 “(문 장관 해임건의안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진전된 안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회동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경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협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

한 주무장관(문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부정했다”면서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다.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형표 해임안’이라는 새 변수를 두고 치열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오전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전문가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김상균 교수(오른쪽)가 여야 간사에게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 앞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오른쪽 앞부터 김연명, 김상균, 김용하 교수. /연합뉴스

“정치·사회 개혁은 국민 요구” 박대통령, 황교안 인준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정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내각을 이끌어나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내각 체제를 뒷받침할 국무위원들을 향해 “새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가일층 매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

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연장으로 청년의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총리지명 철회·법인세 정상화해야”

새정치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정부의 인사·경제정책의 전면적 변화를 촉구하며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인사에서는 총리 후보자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내수와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 예측보다 훨씬 낮아져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한 “6월 국회에서는 지난달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발한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없으며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여야 협의회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다.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이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 후보자 내정이다. 황 후보자는 경제보다 각종 의혹과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거론,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 특혜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 추경 예산 5329억, 전남도 2818억 증액

광주, U대회 64억 지원 포함

광주시는 26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애초 예산보다 5329억원(13.9%) 증가한 4조3814억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366억원(14.1%) 증가한 3조5399억원, 특별회계는 963억원(12.9%) 늘어난 8415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충당을 우선으로 하고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주요 반영예산은 의료급여 121억원, 기초연금 84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

공·폐가정비 10억원, KTX 송정역 주변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 17억원, 광주U대회 개최 지원 64억원, 제2의 남도학숙 건립 55억원 등이다.

특히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1억원을 확보했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만기까지 15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우치공원(동물원)의 일부 시설 개선비로 15억원이 책정돼 낙후한 공원 이미지를 얼마나 탈바꿈할 지도 주목된다.

계장한 지 20년이 넘는 우치공원은 시민이 실만한 그늘공간이 없는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화장실 등도 노후화해 매년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

다. 기타 반영예산은 노인요양보육지원 38억원,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억원, 소방헬기정비 및 화재교육훈련시설 27억원, 교량·터널·지하차도보수보강 20억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관련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8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15년

도 전남도 예산은 애초 예산 6조2820억원 보다 4.5%가 늘어난 6조5638억원이 된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471억원 ▲관광활성화와 문화산업 진흥 124억원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377억원 ▲도민복지 증진 272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309억원 ▲공공행정, 교육, 환경여건 개선 980억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게호 의원, 장성 군부대에 도서 500권 기증 주선

국회도서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이게호 의원(사진)의 주선으로 장성군에 있는 군부대에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6일 오전 장성 상무대 정보통신대에서 국회도서관이 보내준 책 500권 기증식을 했다.

기증식은 이 의원을 비롯해 장성군 의회 차상권 부의장과 김상복·고재진·김옥 군의원, 새정치연합 장성지역위원장, 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식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지역민원 청취 과정에서 해당 부대로부터 도서 기증 요청을 받고 국회도서관과 협

의를 거쳐 성사됐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20대 장병이 좋아하는 소설책뿐만 아니라 인문·문학 등 교양서적과 전문도서 등으로 병영 내 도서관에 비치됐다.

이 의원은 “양질의 신작 도서가 많이 전달돼 병영 내 도서관이 군 장병의 정서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 타이어 제조설비분야의 기술 개척자, 최적의 생산 및 품질시스템 명품브랜드, 그리고 세화아이엠씨!

타이어 제조설비분야의 끝없는 기술이야기! 그 중심에 세화아이엠씨가 있습니다.

타이어 몰드 글로벌 넘버원 기업, 세화아이엠씨

SAEHWA IMC 세화아이엠씨 Have Infinite Potentials